

전남 귀농가구 수 6년 연속 전국 2위

‘귀농·귀촌인 통계’... 1등 경북과 122가구 차 2014가구 귀농 평균 가구원 1.38명... ‘나홀로 귀농’ 1515가구로 75.2%나

전남 귀농가구 수가 6년 연속 경북에 뒤지며 지난해도 ‘만년 2등’에 머물렀다. 평균 귀농가구원 수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했고, 1인 가구 비중도 올라 ‘나홀로 귀농’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최근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귀촌 가구는 3만645가구로 1년 전(3만910가구)보다 0.9%(265가구)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는 2014가구, 귀어 358가구, 귀촌 2만8273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와 귀촌가구는 각각 전년보다 0.6%, 1.0% 줄고 귀어가구는 11.2% 늘어났다.

전국 귀농·귀촌 가구는 32만9986가구로 집계됐다. 인구수 기준으로는 46만 1879명이다. 전국 귀농·귀촌은 2017년 34만7665가구에서 2018년 34만1221가구, 2019년 32만9986가구로 2년 연속 줄었다.

전남 귀농가구는 통계를 낸 지난 2013년부터 6년 연속 경북에 뒤지며 매해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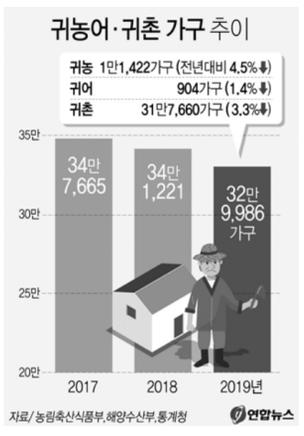
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2136가구)과는 122가구 차이를 보였으며, 격차는 매해 좁혀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를 차지했다. 평균 귀농가구원 수는 1.42명으로, 대구(1.78명), 경남(1.48명), 강원(1.46명), 세종(1.45명), 충북(1.44명), 경북(1.42명), 경기·전북(각 1.41명), 충남(1.38명) 순으로 높았다.

전남지역 귀농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75.2%(1515가구)로, 전년 비중(71.2%)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중 72.3%를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 2인 가구 비율은 16%, 3인 가구 5.1%, 4인 가구 3.7% 등 가구원 수가 많아질 수록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감소 등과 관련해 “경제성장 둔화와 이례적인 종인구 이동 감소, 혁신도시 지방 이전 종료, 1인 가구의 이동 증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귀농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남지역 귀농가구원 총 2784명 가운데 50대가 867명으로, 31.1%를 차지했다. 60대가 695명으로 뒤를 이었고 ▲30대 이하 638명 ▲40대 390명 ▲70대 이상 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귀농인(2020명) 3명 중 1명 꼴(30.2%)로는 겸업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남 귀농가구 가운데 작물을 재배한 수는 61.7%인 1242가구로 집계됐다. 재배 면적별로 보면 5가구 중 4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ha 미만 경작하는 가구가 983가구(79.1%)로 가장 많았고 ▲0.5~1.0ha 미만 194가구 ▲1.0~2.0ha 미만 52가구 ▲2.0ha 이상 1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가구당 평균 재배 면적은 3797㎡로 전국 평균(3673㎡)을 웃돌고 14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 귀농가구의 논벼 평균 재배 면적은 3642㎡였고, 화훼(2562㎡), 과수(2273㎡), 맥류잡곡(1974㎡), 감자·고구마 등 서류(1870㎡), 채소(1738㎡), 특용(1587㎡), 두류(12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귀농가구 수는 채소(41.5%·516가구)와 논벼(38.9%·483가구)가 전체 작물 재배 귀농가구의 80%를 차지했다.

자신이 가진 농지에서만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재배가구는 전체 작물재배 귀농가구(1242가구)의 56.6%(703가구)를 차지했고, 소수 농지 없이 농지를 임차해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 임차가구는 34.8%(432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 귀어가구는 수 358가구로, 지난 2015년 증상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농협자산관리 전남서부지사 농업인들에 채무 조정 혜택

96명에 원금 감면 등 지원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남서부지사는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 기준 96명의 농업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혜택을 줬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사는 최근 ‘찾아가는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지원’을 벌이며 농업인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신용회복 지원제도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해당 농업인들이 이자는 물론 원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조형규 지사장은 “찾아가는 컨설팅은 농업인에 신용회복 제도를 소개하고, 대폭적인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농실태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지역 범농협 조직 CEO 등 50여명과 함께 북구 운정동 감자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번 일손돕기는 ‘광주본부 시너지협의회’ 회의를 대신해 열렸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전검토제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도입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25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지역개발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전검토제’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사전검토제는 공사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등이 지역개발사업, 어촌뉴딜사업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

건축물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기능적합성, 적정성, 조화성 등이 평가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호 전남본부장, KRC지역개발센터장, 어촌수산분야전문가, 관련업체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전남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등 지역개발사업을 검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맥류·배 재배 면적 줄었다

보리계 작물 17.6%·배 4.6% ↓ 가격 하락에 휴경·작물 변경

올해 광주·전남지역 보리계(맥류) 작물 재배면적은 17.6% 줄고, 배 재배면적은 4.6% 감소했다.

작물 가격 하락에 농사를 아예 쉬어버리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공개한 ‘2020년 맥류, 봄 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 등 맥류 재배면적은 1만8673ha(광주 799ha·전남 1만7874ha)로, 1년 전(2만2663ha)보다 17.6%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재배면적은 4만202ha(402.02㎢)로 지난해(4만7456ha)보다 7254ha(15.3%)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맥류 재배면적은 전체의 46.4%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밀의 경우에는 전체 5224ha의 절반이 넘는 53.4%(2790ha)가 재배되고 있다.

지역 맥류 재배면적 감소는 쌀보리와 맥주보리 면적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광주·전남 쌀보리 재배면적은 지난해 1만3341ha에서 올해 1만619ha로 줄었고, 맥주보리도 7355ha에서 5193ha로 감소했다.

단 지난해 아예 재배가 없었던 겉보리를 전남지역에서 올해 71ha 경작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 재배면적은 전년(1967ha)보다 소폭 증가한 2790ha로 집계됐다.

쌀보리 재배가 줄어든 것은 재고, 농협 계약가격 하락, 파종기 태풍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 밀은

기저효과로 면적이 다시 커졌다. 봄감자 재배면적은 소폭 늘어났다.

올해 봄감자 재배면적은 광주 42ha·전남 2331ha 등 2373ha로, 전년(2314ha, 광주 41ha·전남 2273ha)보다 59ha 증가했다.

반면 올해 전국 재배면적은 1만6339ha로 한 해 전(1만8150ha)보다 1811ha(-10.0%) 감소했다.

지난해 감자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였고 그 영향이 올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미종 감자 상품 1kg 도매가격은 2018년 2609원에서 지난해 1485원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1kg당 1612원으로 조금 회복했다.

전국 사과 면적은 2017년 3만3601ha를 기록한 뒤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증가했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광주 3ha·전남 562ha 등 565ha로, 전년에 비해 5ha 증가했다.

배 면적은 전국적 감소세에 맞춰 줄어들었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광주 15ha·전남 2143ha 등 2158ha로 집계됐다.

지난해 배 면적은 광주 32ha·전남 2230ha로 올해 각각 광주 52.7%, 전남 3.9% 감소했다. 배 재배면적은 국내 배 수요가 줄어든 탓에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맥류, 봄 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모두 줄었다”며 “고령화된 농가가 수익성이 하락하자 농사를 아예 쉬는 등 휴경을 하거나 일부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8월 3~31일 논문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는 8월3~31일 식품외식산업 관련 대학생 논문을 공모한다.

aT는 이 기간 동안 식품외식산업 정보를 활용한 대학생의 창의적인 논문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FIS를 활용한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는 올해 4회째 열리고 있다. 주제는 제품개발 연구 또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등으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을 작성하며 FIS 식품외식산업정보(aTfis.or.kr)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aT는 심사를 통해 10여 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은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우수상 3편과 장려상 6편은 aT 사장상과 상금 각 200만원, 1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내년 aT 청년인턴 공모에 지원하면 서류전형 가점 혜택을 준다. 또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제작돼 식품외식산업의 우수 인재를 알리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김민호(충남대)씨 외 2명이 ‘양배추 분말의 첨가 저지방 햄버거 스테이크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장관상인 최우수상에 뽑혔다.

신현근 식품수출이사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식품외식산업이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외식 분야의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